

하늘로 열린 반(半)공간, 마루마당

The Semi-Public Space Open to the Sky: The Maru Garden

이공희 / 국민대 테크노전문디자인대학원 교수
By Lee Gong-Hee

도시주거건축에 실마리가 그러하듯 얼마나 자연스런 사적영역확보에 관한 구법을 갖추어 조형하였는가 이 주거건축의 개연적 관건이 되었을 것이다. 서초구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방배동이라는 주거단지의 이면도로를 곁하고 있는 지역적 컨텍스트가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여기에 먼저 관심하게되는 것은 이 건축의 해결 구법이 여는 다른 구법과는 다르게 다른 또 하나의 위계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적영역의 물성으로부터 사적공간으로 반전은 대개의 경우 외부공간에서 반공간(Semi-Public Space)의 위계를 갖고 해결된다. 특히나 주거건축의 경우 현관앞 작은 마당이 반공간이 되고 남겨진 마당은 마당으로 별도의 기능위계로 구분되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해(解)일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 접근을 수용하면서 이 건축은 현관과 수직동선을 위한 계단실을 하나의 용적으로 구분, 건축의 전면에 조형하여 두고 거기에 외부와 만나는 경계에 선 큰 마당까지를 둠으로서 사적영역으로의 본격적인 접근 이전에 또 다른 위계를 경유케하는 장치를 더함으로써 영역의 전이가 용이하게 하는 요건을 갖춘다. 이 장치는 도시로부터

사적영역이 되는 주거에서 수직동선을 해결하는 계단용적을 그 경계에 둠으로 해서 본래의 반공간과 또 다른 반공간으로서 마루마당을 갖게하는 자연스런 동기가 되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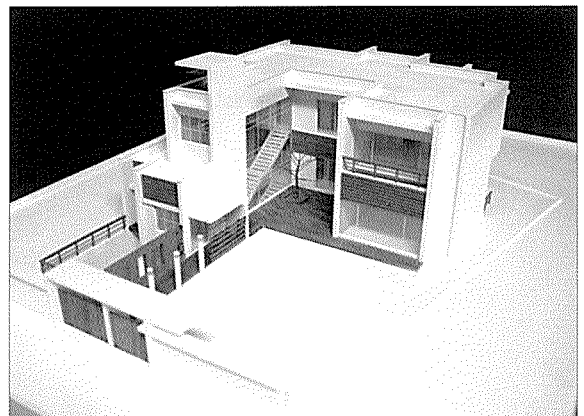
이 마루마당은 외부로 시각이 열려져 자칫 공간의 위계를 잃게될 식당에 반공간의 역할까지 감당을 의식한다. 이런 연유의 마루마당은 외부공간처리 구법의 구체적 의사표시로 마루마당의 구축은 반공간으로서의 의사를 보다 분명히 하여주는 소재가 되어준다. 마루마당을 이웃하면서 등가적 위계로 수직동선을 해결하면서 일,이층의 층간기능구분에 전이하고 매개하는 계단실은 몇가지의 씨퀀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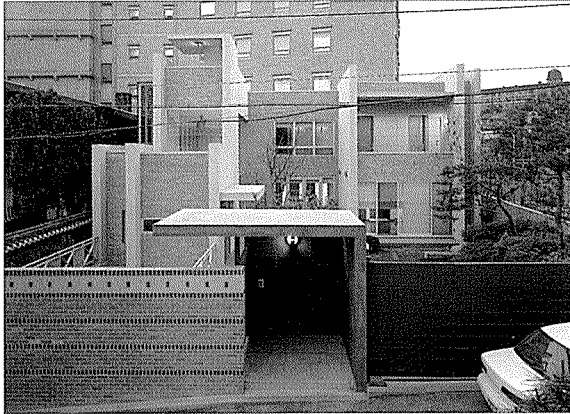
이동간의 시각에 풍요로움을 주는 마루마당 한켠에 배롱나무가 그 하나이고, 오르는 동선에 전면으로 배려되어 투명하게 열려진 후레임 창이 다른 하나이고, 지하로 진입하는 동선에 시각적 목표물이 되는 선크리마당이 또 하나의 의도된 씨퀀스이다. 이런 장면들로 구성된 반공간은 목적공간이 되는 기능실과 구분하여 별도의 위계를 이루지만 조형의 구법은 별도의 조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조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반공간이 된 마루마당을 전면으로 하고 뒷마당을 바로 이웃하여 시각적 연계에 더하여 바람의 통로를 갖는 식당공간의 배분은 반공간을 경유한 기능실이 확보할 수 있는 사적공간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

도시적 스케일의 건축에 이웃한 주거건축의 대응이란 별다른 전략을 허용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이 건축이 보여주는 적극적 외부공간의 처리가 갖는 디자인 전략과 더불어 한정된 공간 구분이 아닌 전면에서 얻어진 반공간의 처리구법과 연계하여 소통함으로써 얻어진 관념적 연계까지도 도시적 스케일을 극복하는 장면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각의 연속으로 이층의 기능실을 관심하여 보면 일층의 처리구법과는 사뭇 다른 테라스라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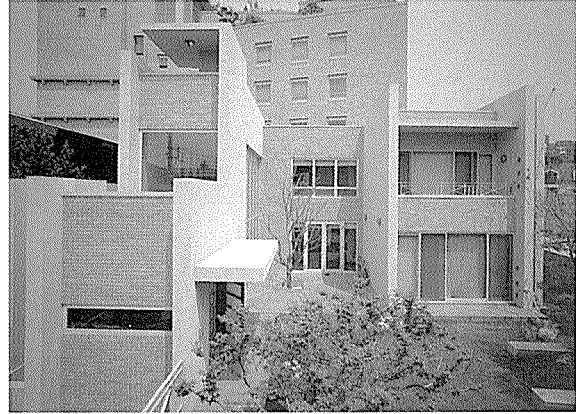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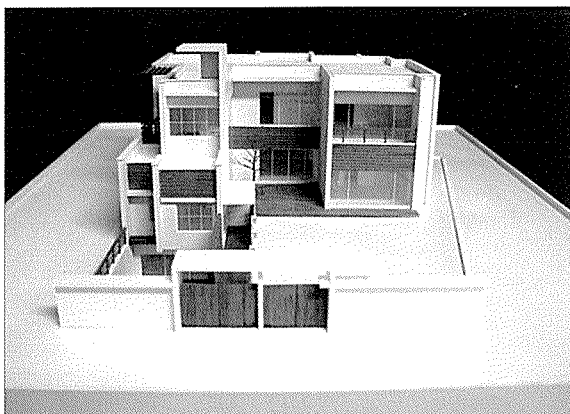


치로 반공간을 의식함을 알 수 있다. 각 기능실은 각기 크기가 다른 하나의 테라스를 갖는다. 그 향을 배면으로 갖게되는 것은 전면에 반공간이라는 위계해결구법에 근거한 연유 이외에도 후면 바로 근접한 도시스케일의 건축에 대응하는 전략의 하나로 개념될 수 있다. 완전한 스케일의 해소라기 보다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선택인 전이공간으로서 반공간으로 테라스의 채택은, 물론 사적영역의 확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사적영역을 요구하는 마스타 존인 안방공간에는 테라스에 더하여 보조기능공간을 배분하는 면밀함까지도 이 건축의 의사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반공간으로 배려된 기능들로 만들어진 건축의 조형은 그 열림과 닫힘의 조절은 보다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공간이 전이공간이 되어 배치하고 있는 전후면의 조형은 열림으로 일관하고 좌우측면은 닫힘에 더하여 수직벽을 연장하여 구사하고 있다. 반공간인 계단실의 개방은 반공간으로써 열림이고 보면, 연장수직벽의 의사는 반공간에는 적극적으로 열리고 그 외에는 닫혀진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스처어로 이해하여도 된다.

좀 더 원경으로 가면 더욱 분명한 의사를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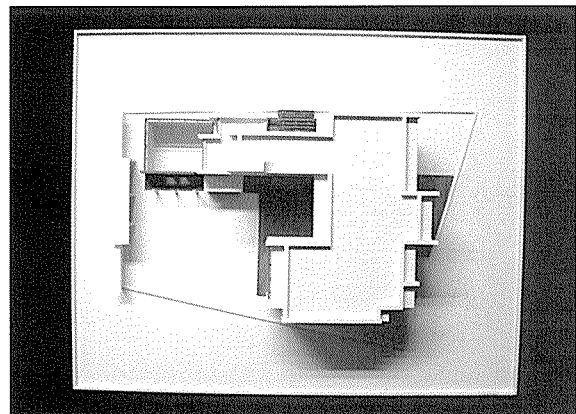


지하게 된다. 수직벽은 한방향으로 반공간을 향하면서 좌우측의 시각을 단절, 차단한다. 이 의사는 이 건축의 표질에 면성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각 기능실의 용적으로 만들어진 조형이기보다는 공간의 위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만들어진 벽들이다. 그 벽이 만든 면(面)성을 수단으로 조형하는 이 건축이 보여주는 감성의 질은 주제로 향한 건설함이다.

도시컨텍스트에 대응하는 반공간 구법, 그것에 충실한 열림과 닫힘, 그것의 조절능력을 표질까지 연장하여주는 면성의 확보가 이 건축에 주목하고자하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

The issue of securing private property is crucial in the planning of houses, especially those in an urban context. This is even more obvious in this project, which is located in the heavily urbanized district of Sucho-gu, with a context facing the rear road of Bangbae-dong's residential area. The reason this aspect interests us is that its strategic solution, apart from those of others, has a hierarchy of its own.

The transition from the materiality of urban 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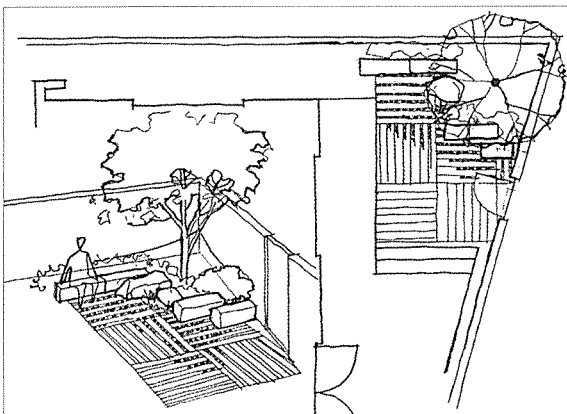




areas to a private space is usually made through the hierarchy of semi-public spaces in the outdoors. Especially in houses, the most common approach would be to obtain semi-public space from a small portion of the garden in front of the main entrance, while the rest will serve other functional needs. Adopting this approach, this work establishes the main entrance and staircase as a separate volume - displaying it upfront as a formal element in the overall composition - and places a sunken court on its border with the outdoors - the complete transition to private area is preceded by an experience of another spatial layer, enabling the transference to be done with ease.

This device also provides a natural motivation for the building, which places the bulk of the staircase on its border, to have its Maru garden as another kind of semi-space. The Maru garden also saves the dining room from losing its spatial hierarchy due to its openness towards the outside, and encourages it to become a semi-space of its own.

It is also noteworthy that a set of sequences is provided by the staircase, which serves as a medium to link the functional discrepancies of the two floors, vertically juxtaposed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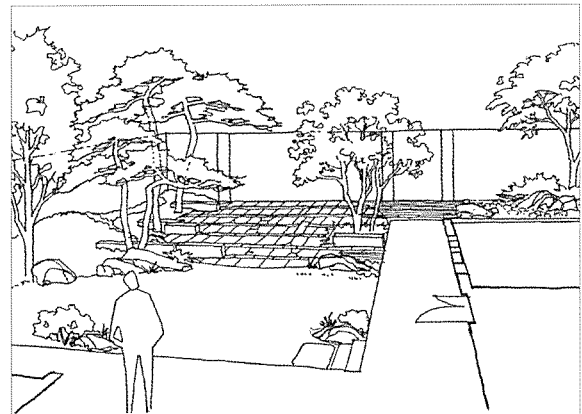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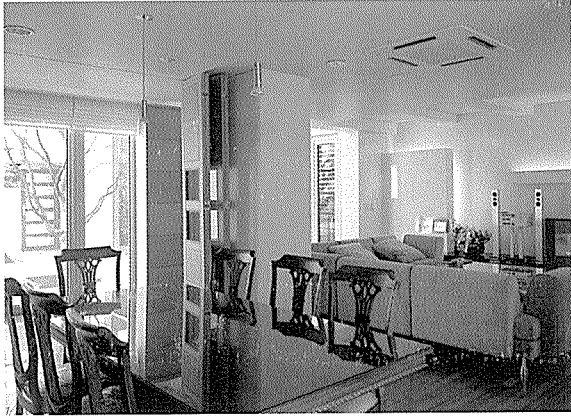
one another. The sequence, consisting of a tree at a corner of the garden, the frame window wide open from the escalating path, and the sunken garden which becomes the visual target from the approaching path towards the basement, succeeds in enriching the experience of motion.

Thus sequenced semi-space maintains an independent hierarchy from functional rooms serving their respective purposes, but their method of composition does not disagree with that of the whole building.

The division of dining space, with its visual connection between the semi-spaced Maru garden and the rear garden as well as the path of winds, displays what the private space can be when the functional room is mediated by the semi-space. There is only limited choice of strategies that a residence can adopt against the architecture of urban scale, but this work successfully overcomes the burden of size by conceptually relating design tactics (the active use of outdoor space) with the methods of semi-space, deriving not from confined classification of spaces but from the whole.

When the same viewpoint is laid upon the





program of the second floor, one can recognize that it has another strategy to construct a semi-space of its own - by using the terrace. Each room has a terrace with different sizes. The fact that it faces the opposite direc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placing of semi-space on its front, but it can also be read as the architect's way to face the rear context that already has a scale of the metropolis.

The choice of terrace as a semi-space of transition within a given field, rather than a settlement of the overall scale, apparently is based on the object to secure the private area. Where this privacy is further required - the master bedroom - the architect did not forget to add a supplementary function space to the terrace.

This will to program the functional spaces with regard to semi-spaces can also find its fine expression in the subtle control of opening and closing.

The frontal and rear composition utilizing semi-space as transitional zones operates by opening, while the sides add methods of closing and extends them through vertical walls.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opening of staircase is actually an opening of semi-space, the use of extended vertical walls can be



understood as a manifestation of the strict difference between open semi-space and the closing of others.

Seeing it from further distance, it becomes more apparent. The vertical wall extends itself to the semi-space in a single direction, obscuring the vision of either side.

This proves that the surface of the building is given a plane quality. The whole building is not so much a composition of volumes built with functional units as a series of walls, corresponding to the hierarchy of space. Persistence towards the subject can be felt by the way the work builds through the planeness of walls.

The strategy of semi-space against the urban context, the interplay between openness and confinement that substantially serves that strategy, and the extension of its control to the surface by use of planes together make this house truly stimulating to its viewers. (번역/최원준)

